

고정성 보철물을 계획한 상악 전치부의 경조직, 연조직을 동시에 이용한 치조제 보존 및 증대술

안은주*, 김민규, 진민주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치과 진료부

연구배경

상악 전치부 수복에 있어서 심미성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특히 치조골의 심각한 손실이 있는 경우 심미성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고정성 보철물은 임플란트 수복에 비해 좀더 술식을 단순화하여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심미성의 회복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발치 후 상악 전치부 치조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한 흡수를 보이므로 발치 후 즉시 경조직과 연조직을 동시에 이식함으로써 치조제의 보존 및 증대를 얻을 수 있다.

연구방법 재료

상악 좌측 중절치에 깊은 치주낭과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2명의 환자에서 발치와 동시에 Bio-oss 와 자가 결합조직을 이식하였다.

임시의치를 장착하고 pontic area의 조정을 시행하였다.

약 3개월 후 최종 고정성 보철물을 시적한 후 치조제의 보존 및 증대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두 경우 모두 심미적으로 acceptable 하였으며 치조제는 발치 전과 비교하여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